

■ 영화



# Cobweb(거미집)

- 감독: 김지운
- 출연: 송강호(영화감독 김열 역)  
임수정(이민자 역), 오정세(강호세 역)  
전여빈(신미도 역), 정수정(한유림 역)  
박정수(오 여사 역), 장영남(백 회장 역)
- 러닝타임: 132분
- 등급: NR-15
- 개봉일: 2023년 1월 19일
- 장르: 코미디, 드라마

## [줄거리]

1970년대 꿈도 예술도 검열당하던 시대. 성공적이었던 데뷔작 이후, 악평과 조롱에 시달리던 김 감독(송강호)은 촬영이 끝난 영화 '거미집'의 새로운 결말에 대한 영감을 주는 꿈을 며칠째 꾸고 있다. 그대로만 찍으면 틀림없이 걸작이 된다는 예감, 그는 딱 이틀 간의 추가 촬영을 꿈꾼다. 그러나 대본은 심의에 걸리고, 제작자 백 회장(장영남)은 촬영을 반대한다. 제작사 후계자인 신미도(전여빈)를 설득한 김 감독은 베테랑 배우 이민자(임수정), 톱스타 강호세(오정세), 떠오르는 스타 한유림(정수정)까지 불러 모아 촬영을 강행하지만, 스케줄 꼬인 배우들은 불만투성이다. 설상가상 출장 갔던 제작자와 검열 담당자까지 들이닥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된다. 딱 이틀이면 돼!"  
과연 '거미집'은 세기의 걸작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 신간

# 가지 않은 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했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어깨를 풀어놓고 멋지게 나아가는 스스로를 기대한다. 맑은 날은 맑은 날 그대로, 흐린 날은 또 흐린 날대로 좋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느끼며....."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 나이 회갑을 넘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지나쳐 버렸던 작고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며 하늘의 유랑 별처럼 살아가고 싶다. 남아있던 미움마저도 모두 내려놓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또 다른 길을 떠나려 한다." (에필로그 중에서)

■ 지선경 지음 | 생각나눔 펴냄 | 208쪽



무료 3D 디자인 • 무료 견적 • 20년 경력



CUCKOO 문의 환영

### 신년 이벤트

부엌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급 쿠쿠 비데를 설치해 드립니다.  
단, 계약금액 만불 이상

CUCKOO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 샤워 도어 / 창문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쓰가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calikitchenbath@gmail.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